

“지방소멸 극복” 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

출생·일자리·주거 지원 등 12조9천466억 규모

이민정책·민생 등 삶의 질 향상 정책 수요 반영

전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9천466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9천466억 원

이다. 일반회계는 5천180억 원(5.2%) 증가한 10조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

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청년복

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5천만 원(당초 6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억 3천만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을 증액했다. 장원범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읍·면 단위 국지성 호우 피해 대비를”

김지사, 세분화한 지역별 대책 지시...강진 도복 피해 현장도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특히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통계를 내고 피해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6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호우 피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요즘 기상은 예상보다 2-3배 넘게 피해가 심해져 일 강수량 극값을 갱신하는 등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데다, 넓은 지역이 아닌 어느 한쪽을 때리듯 집중해서 비가 퍼붓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는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나, 강변수계 영향구간에 따라 지역별로 세분화해 최고값 통계를 내고 이에 따른 상황 관리 및 피해 대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재해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6월 장마가 오기 전, 5월 한 달 간을 재해 대책 사전 대비의 달로 정해 모든 피해 우려 시설을 점검해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되 필요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확실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귀리·보리 등 맥류 도복 피해를 입은 강진군 강진읍 현장을 찾아 신속한 복구 대책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농작물 피해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농작물 재해 보험금 및 재해복구비도 조속히 지급되도록 노력해달라”며 “피해 농가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조건인 만큼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후 집중호우로 도복 피해를 입은 강진군의 한 들녘을 찾아 농작물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경기도, 공동 번영·상생협력 ‘맞손’

협약 체결 후속 과제 점검·확대 논의

광주시는 지난 3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경기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광주시-경기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 내용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만남이다. 협력 과제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력 과제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

성화와 선도 협력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청년·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추진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 공동 개발·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양 시·도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증 기업의 제품 평가 및 기술 지원, 인공지능 박람회 개최 등 교류 참여하고 있다. 또 미래모빌리티 전환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간담회, 청소년 교류 행사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양 시·도는 앞으로도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사업의 실행력·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백성강 기자

나주에 메타버스 허브센터 들어선다

도,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전남도와 전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6일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 및 운영’ 공모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허브센터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주관하고 전주시와 광주시가 참여한다. 올해 사업비 17억9천만 원(국비 7억2천만 원·지방비 10억7천만 원)을 들여 나주에 구축한다. 고도화된 실증지원 기술을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를 검증·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테스트 장비 및 교육장 구축 등 기반

조성 중심으로 이뤄진다. 2025년부터는 기업 수요 맞춤형 실증 지원 및 메타버스 아카데미 등 실질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메타버스 지원센터를 운영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과기부 공모)에 선정돼 목포·여수·신안을 대상으로 체험형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 허브센터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과 연계해 메타버스 신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시원 기자

광주 상인들, 5·18주간 ‘나눔세일’...15-19일 최대 18% 특별할인

5·18주간 나눔·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고 오월광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사업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6일 “지난 3일 김승재 광주시장인연 협회장과 윤준호 공천제과 대표, 마옥천 베비에르 대표, 이창호 양동복계상가 대표, 민경본 용봉동 패션의거리 대표, 김영애 봉선시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월광주 나눔세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상인 대표들은 오월광주의 소중한

역사를 앞장서 실천하는 등 공동체 구현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5·18 기념주간 나눔세일 행사 참여 ▲나눔세일 참여 업체 홍보, 홍보물 지원, 상품 구매 촉진 ▲5·18정신 계승 사업 발굴·추진·참여를 위한 상시 협의 등 나눔·연대의 자랑스러운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나눔세일 협약을 맺은 업체는 5·18기념주간인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에서 최대 18%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할 예정이다. /백성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33 GREEN & GOLD

‘행복’을 짓습니다! ‘행복’을 꿈꿉니다!

좋은 학교, 아름다운 자연, 편리한 생활이 갖추어진 곳에 아파트를 짓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좋은 프리미엄, 아름다운 주거 공간,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는 많지 않습니다.

해동의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으로 당신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Happy together - 해동건설 주식회사

산업안전 우리가족의 행복입니다.

광주양산주공아파트	장흥건설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진도항2단계건설공사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터미널 확충공사	대전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광주과학기술원	전주솔내초등학교
국립항공박물관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목포우회도로(청호-삼호) 건설공사	강변도로2공구

해동건설 | 주 해동주택 | 주 해동E&C

전국 곳곳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성실, 믿음, 정성으로 완벽 시공을 추구해 가는 기업